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2년 7월 14일 | 조사역(G3) 이승제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148천 ㎢	1.7억 명 (2021e)	의원내각제	비동맹중립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3,571억 달러 (2021e)	2,147달러 (2021e)	Taka	85.80 (2021)

□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면이 인도와 접하고, 남동부 지역 일부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세계 8위(아시아 5위)의 인구대국으로, 소득수준 향상시 내수시장 성장이 기대됨.

□ 1947년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동벵골 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으로 편성되었음. 이후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에 반발한 동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끝에 1971년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을 주축으로 한 독립군이 인도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전쟁에 승리하면서 방글라데시를 건국하였음.

□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봉제업 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1년 최빈국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2026년 정식으로 최빈국을 졸업할 예정임.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3연임으로 정치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리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 인도 등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8 수교(북한과는 1973. 12. 16)

주요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73년), 항공협정('79년), 문화협정('79년), 사증면제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84년), 투자보장협정('88년), 경제기술협력협정('95년), 과학기술협력협정('95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7년), 군수방위산업협력양해각서('04년), 무상원조협정('14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1,282,342	1,033,331	1,635,854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수 입	404,703	392,918	551,613	의류, 신변잡화(신발, 가방 등), 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332건, 397,751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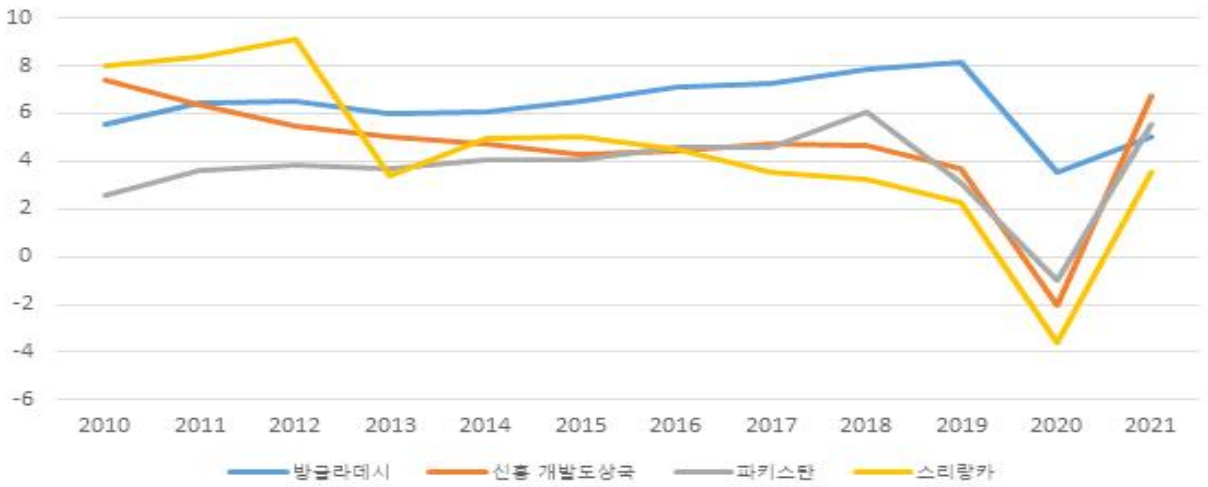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f
경 제 성 장 률	7.9	8.2	3.5	5.0	6.4
소비자물가상승률	5.8	5.5	5.6	5.6	6.0
재정수지/GDP	-4.8	-6.3	-5.6	-4.2	-6.2

자료: IMF, EIU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성장세 둔화

- 방글라데시 경제는 2000년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전까지 매년 4%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함. 특히 2009년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가 집권한 뒤부터는 2009년 5%대에서 2019년 8.2%까지 상승하는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옴.

[그림 1]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 추이: 신흥 개발도상국 및 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April

-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높은 경제성장은 정부와 민간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방글라데시는 1970~80년대까지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업의 비중을 2010년대 이후 10%대까지 축소시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을 확대함. 특히 정부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봉제 제조업에 세제 및 인프라 지원 혜택을 집중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UN 지정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이라는 조건을 적극적인 원조자금 수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십분 활용해왔음.

- 이에 더해 GDP의 약 6~8%를 차지하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이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방글라데시 경제는 비슷한 조건의 주변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경제동향

국내경제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폭의 침체에 빠져들면서 방글라데시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되어, 이전까지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2019/20회계연도('19년 7월 ~ '20년 6월)에는 전년 대비 4.7%p 하락한 3.5%를 기록함. 이는 40년래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이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방글라데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정도가 높지 않으며, 교역규모가 GDP의 약 30% 수준에 불과함. 때문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의류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추정됨.

- 급격히 감소했던 국가 간 교역이 2021년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거래상대국으로부터의 의류 수입 수요가 증가해, 방글라데시의 수출입은 코로나19 펜데믹 이전과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봉쇄조치를 내리면서도 의류 제조업에는 예외를 두며 수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함. 그러나 2021년 당시 낮은 백신 접종률로 2차, 3차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가계소비의 위축이 지속되어 2021년의 경제성장률은 5.0%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2022년 이후 점차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2022년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점차 가라앉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2021년에 이어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정책과 이에 발맞춘 재정/통화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2022년 4월 IMF 세계경제전망(WEO)은 방글라데시가 2022년 이후 계속해서 약 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함.

- 다만, 2022년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와 무역이 일부 위축되고, 세계 경제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국면에 접어드는 하방 위험이 존재함.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할 전망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은 2022년 방글라데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5.3%로 설정함. 그러나 2022년 4월 이미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했으며 6월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022년 방글라데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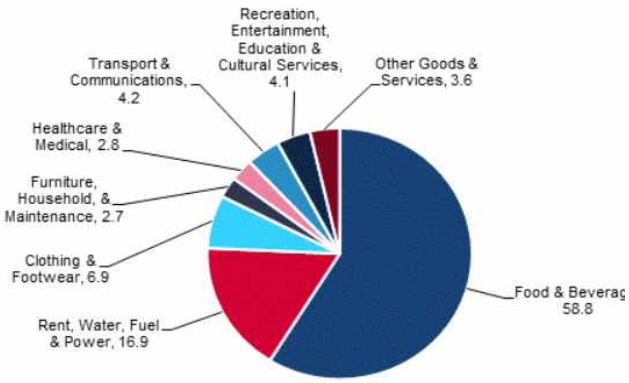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두 나라의 공급이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밀과 식용유의 품귀현상이 일어나 국제가격이 폭등함. 6월 현재 방글라데시 국내 시장에서 식용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6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며, '22년 5월에는 밀 가격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전월 대비 50% 급등한 바 있음. 밀은 방글라데시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곡물로, 기초 생필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져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국내경제

[그림 2] 방글라데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2022년)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그림 3] 방글라데시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자료: Fitch Solutions,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코로나19 대응 지출의 증가로 2022년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전망

- 2022년에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정지출은 확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가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응 지출의 연장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GDP의 4.5%, 6% 규모의 재정 지출을 경기부양책에 배정해 왔음. 정부는 중소·수출기업들에 대한 현금 지원과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지 지원 등 다방면의 사회 안전망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완화하고자 노력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확장 재정에 더불어 기업들에 대한 감세 혜택을 실시하고 있어, 2022년에도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연료와 전력, 식료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GDP 대비 -6%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수지	-7,095	-2,949	1,193	-15,563	-17,487
경상수지/GDP	-2.6	-1.0	0.4	-4.4	-4.4
상품수지	-17,284	-15,929	-16,394	-32,522	-33,448
상품수출	38,682	38,747	32,456	41,908	46,937
상품수입	55,966	54,676	48,850	74,431	80,385
외환보유액	29,973	30,648	41,036	42,851	42,169
총외채	60,356	63,160	73,060	93,130	95,489
총외채잔액/GDP	22.0	20.9	22.6	26.1	24.1
D.S.R.	4.7	5.5	6.1	4.9	10.8

자료: IMF, EIU

수입 수요의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

- 방글라데시의 경상수지는 2017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만성적 적자 구조는 방글라데시의 주력 수출품인 기성복 의류 생산 과정에서 수입 원자재의 비중이 높고, 국가 예산의 약 1/3을 할애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건설기계, 자본재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20년에는 소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수출의 감소보다 수입의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결과임.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며 의류 등 상품수출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조업의 위축 및 인프라 투자의 중단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함.

-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2022년 경상수지 적자 폭은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타카화(Tk)의 평가절하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하방 위험이 존재함.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의류 수출과 원자재 수입,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9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6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위축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타카화의 평가절하로 수입대금 결제시 보다 많은 외화가 필요하게 되어 외환보유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경제성장에 발맞춰 외채규모가 증가하며 안정적 외채구조를 유지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프라 건설 등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국제기구의 원조자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라 외채 규모도 함께 증가해옴. 방글라데시는 국제신용평가사 평가등급* 상 '투자부적격' 국가에 속해 총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 초반에서 유지되고 있음.

  *Moody's: Ba3 Fitch: BB-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D.S.R. 등 방글라데시의 외채 관련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방글라데시의 신용도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 양허성·공적 자금 이외의 해외 차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의류 제조업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2021년 기준 14%)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1년 기준 187%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구조적취약성

의류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 방글라데시의 임금수준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이 중국의 1/4 및 인도의 1/3 수준에 불과함. 최근 중국 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노동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방글라데시와 주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방글라데시는 UN 지정 최빈국이라는 조건을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EBA(Everything But Arms) 등 여러 무역 관련 특혜를 적용받아 의류 제조업이 핵심 산업으로 성장함.
- 그러나 현재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외부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의류 제품 수출이 전체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 또한 EU와 미국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출 과정에서의 특혜 철회 등 외적 변수 발생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됨.

-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뒤이은 의류 수출 규모 2위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2020년 이후 최근 의류 제조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을 이룬 베트남과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음. 2020년 일부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로 큰 타격을 입어 베트남에 2위 자리를 내어준 바 있음. WTO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의 의류 제조업은 제품 품질, 배송 기간,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베트남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등 경쟁 국가들이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최빈국 졸업으로 인해 2026년 이후 기존에 누리고 있던 관세 혜택들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류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증가

- 방글라데시는 우기에 몬순 폭우가 지속되는 열대 기후로 기존에도 6~10월 사이 대부분의 강우량이 집중되어 홍수 및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른 시기에 우기가 시작되거나 강우량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약 60%가 해발 5m 이하의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우기에 장기간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어 이러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Germanwatch의 글로벌 기후위험지수 보고서는 지난 20년(2000~19년) 간 기후 관련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 상위 10개국 중 방글라데시를 7위로 꼽음. 20년 간 방글라데시가 입은 기후 관련 피해 규모를 달러로 환산할 시 18억 6천만 달러(구매력 기준)로 추산됨.
- 2022년 4월 시작된 홍수 피해로 방글라데시는 약 2개월 동안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20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3일간 총 2,500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이는 100년 만의 강우량 최고치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심화 될수록 이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높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경제구조 및 정책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중국·인도 두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유리한 입지조건

- 방글라데시는 총인구 약 1억 6,700만 명(2022년 예상, IMF WEO) 중 약 2/3가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이며, 그중에서도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향후 2050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견고한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인해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

- 2022년 기준 세계 8위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인구 규모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추후 소득수준 상향 시 제조업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거대 소비시장으로의 역할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됨.

- 방글라데시는 중국·인도·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 1·2위인 두 거대 시장과 인구 6억 8천만 명 규모의 동남아 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통해 거대 시장 간 무역 허브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음.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

-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열악한 투자 환경과 인프라 부족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열악한 투자환경 탓에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정부는 2010년 경제특구개발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청(BEZA, Bangladesh Economic Zone Authority)를 신설해 투자 유치를 추진해옴. 개발 예정인 100개의 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들은 법인세·배당소득세·자본소득세를 10년 간 면제받으며, 원·부자재 수입관세 및 등록세·인지세 면제 혜택을 부여받을 예정임. 현재 중국계 건설회사와 일본의 혼다 오토바이 생산공장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음.

- 경제특구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효율성을 체감토록 하여 추가적인 외국인투자를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전력 등 제반 인프라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체 예산의 약 1/3 규모를 연차개발예산(ADP, Annual Develpment Programme)으로 배정해 꾸준히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12년 이후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옴.

[그림 4]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01~20년, 백만 달러)

자료: 세계은행

정책성과

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한 꾸준한 경제성장

- 2008년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2021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의 '비전 2021'을 발표함. 방글라데시 정부는 비전 2021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 수립, 가난을 벗어난 중위소득국 진입, 국민 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등 8가지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 주기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음. 2022년 현재는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0년 7월 ~ 2025년 6월)이 진행 중이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7.7%,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비전 2021 장기 개발계획을 실행하면서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조업에 중점을 둔 투자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2020년 2월 비전 2021의 후속 계획인 '비전 2041'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포함된 '2021~41 전망계획(PP2041, 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41)'을 발표함. 비전 2041은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진입, 빈곤 퇴치, 디지털 경제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2026년 UN 선정 최빈국 졸업 예정

- 방글라데시는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경제성장 노력에 힘입어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최빈국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면서 2026년 실질적인 최빈국 졸업을 권고받음. 졸업 준비기간 5년 중 실시되는 2024년 소득 그룹 분류 때까지 최빈국 소득 기준을 상회하면 2026년 공식적으로 최빈국 졸업을 승인받을 예정임.

- UN의 최빈국 졸업요건은 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원지수, 경제적 취약도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며, 세 기준을 2회에 걸쳐(평가 주기 3년) 충족하면 UN경제위원회(ECOSOC) 산하 개발정책위원회(CDP)로부터 졸업 인증을 받음. 구체적 기준은 1인당 GNI 1,222달러 이상, 인적자산지수 66점 이상, 경제적취약도지수 32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2021년에 치러진 2차 심사 당시(2019년 지표 사용) 1인당 국민소득 1,827달러, 인적자원지수 75.4점, 경제적취약도지수 27.3점을 획득하며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음.

정치·사회안정

정치안정

하시나 총리의 장기집권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여당 지지율 하락세

- 아와미 연맹(AL)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2008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이후 2014년, 2018년 선거에서도 연달아 승리하며 2023년까지 15년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18년 총선에서 아와미 연맹은 총 의석 300석 중 288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갖게 됨.
- 방글라데시에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의 양당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2018년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칼레다 지아 당수가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국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해 2023년 총선에서도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의 아와미 연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부와 아와미 연맹의 대중적 인기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아와미 연맹 지지율의 핵심은 집권 기간동안 유지해온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이라는 실적이었는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외출 제한, 교역량 감소 등 경기 둔화 요인이 발생하면서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지자 아와미 연맹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사회안정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

- 2021년 7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는 여러 차례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방글라데시는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백신 접종 속도 또한 느린 편이었으나 2022년 7월 현재에는 약 70%의 인구가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방글라데시는 2021년 초 인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었으나, 당해 4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인도가 백신 수출을 중단해 기존의 접종계획이 지연됨.

- 코로나19 팬데믹이 보건·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등으로 수입이 줄거나 직장을 잃은 이들이 늘어남. 여기에 더해 2022년 4월 최악의 홍수까지 발생하면서 빈곤층과 실업자, 주거지를 잃은 이들로 인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야기됨.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연간 GDP의 6%에 해당하는 약 220억 달러를 임금 지원과 사회 보장제도 등에 지출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도 이를 위한 지출을 늘리며 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사회안정

Moody's는 방글라데시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방글라데시가 매우 높은 사회적·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은행 제도와 법률 등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열악해 추후 위험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글라데시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vi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1년 11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대부분이 저지대 삼각주인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홍수에 취약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자주 발생함. 또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인프라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기후 관련 사건들이 대형 위기로 발전하고, 지진과 몬순 기후에 따른 강우량 집중으로 농업에 미치는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어서 농민들의 수입과 소비가 불안정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방글라데시의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극도로 부정적(5등급)인 것으로 평가됨.
- **(사회)** 최근 몇 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룸에 따라 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빈곤율이 낮아져 기초적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부재, 국민 건강·보건 서비스와 노동자 권리의 열악함 등을 고려해 사회(Social) 영향은 극도로 부정적(5등급)인 것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와 법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제도적 비효율성을 낳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이러한 지배구조적 문제가 은행 자산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정치·사회안정

국제관계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있는 실리주의 외교 노선 추구

- 방글라데시는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대변하는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지정학적으로 인도, 중국과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방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심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인도-중국의 영토 분쟁 및 방글라데시 내 인프라 투자 경쟁 등의 사안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 관계를 고려하며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1위 무역상대국으로, 방글라데시는 중국으로부터 의류 제조업의 원자재, 인프라 관련 건설기계,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고 중국으로 완성 의류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에 항만시설, 송유관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6월 중국이 방글라데시산 수입품의 약 97%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방글라데시의 교역이 한층 확대된 바 있음. 다만, 항구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국 자본의 자국 기반시설 잠식 등을 우려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중국의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가지며,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전통적인 우방 국가임. 15년 장기집권 중인 현 여당 아와미연맹(AL)은 방글라데시 국민당(BNP)보다 조금 더 인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 있음. 다만 최근 중국이 방글라데시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인도와의 관계가 자칫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인도 등 인도양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방글라데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적 타격 발생

- 2022년 2월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또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러시아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교역 파트너 중 하나로 2021년 기준 수출액 6.6억 달러, 수입액 4.7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운송비가 증가하고, 서방이 러시아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SWIFT)에서 배제시켜 수출입 과정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증가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방글라데시는 러시아와 총 사업비 120억 달러 규모의 루푸르(Ruppur)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건설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UN 결의안 표결에는 기권했으나,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는 결의안에는 찬성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함.

외채상환태도

2007년 이후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으며,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한 수준

- 2022년 3월 말 기준 방글라데시는 OECD 회원국 ECA 지원 잔액 47.4억 달러(단기 8.0억 달러, 중장기 39.4억 달러) 중 중장기 지원 잔액 14.4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연체비율은 0.3%로 미미한 수준임.
- 방글라데시는 2007년 이전 일본을 포함한 원조국의 외채 탕감을 받은 사례(2003~07년, 4.1억 달러 규모)가 있으나, 이후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 경험은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2.06.)	5등급(2021.06.)
Moody's	Ba3(2022.07.)	Ba3(2022.03.)
Fitch	BB-(2021.11.)	BB-(2020.11.)

OECD 등급은 안정적으로 5등급 유지

- OECD는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세,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장기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월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주춤한 성장세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OECD는 코로나의 여파가 사라지면 방글라데시가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종합의견

-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코로나19 이전까지 연평균 6%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2018년에는 최빈국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2026년 공식적인 졸업을 앞두고 있는 등 뚜렷한 경제성장 성과를 보임.
-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으로 상품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도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22년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전 세계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이 2018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등으로 최근 아와미 연맹의 지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반정부 시위 등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향후 정책 당국의 코로나 대응,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수지 건전화, 인프라 확충 및 투자여건 개선, 부정부패 척결 노력 등이 동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